

#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년새 4.1배 ↑

### 65세 이상 노인 60%는 국민연금 '사각지대'



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연금 지급 대상 증가추세가 한국 사회 노인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런데도 여전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

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62세 이상 지난해 기준 수급개시연령)은 410만6791명으로 5년 전인 2013년(264만882명)보다 1.6배 증가했다. 이는 같은 기간 전체 62세 인구

가 760만9103명에서 965만6832명으로 약 1.3배 증가한 것보다 높은 증가추세다.

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으로 좁혀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처음 300만명대(311만8722명)를 넘어섰다. 2013년 202만9791명보다 1.5배 많아졌다. 이 또한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625만986명에서 765만 408명으로 1.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높다.

특히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지난해 28만831명으로 5년전(6만

8854명)보다 4.1배나 늘었다. 이 가운데 76명은 100세를 넘겼으며 여성이 65명으로 남성보다 5.9배 많았다. 최고령 연금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A(남)씨다.

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미루는 수급자도 1년새 36%나 늘었다.

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(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)까지 수급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기기간동안 월 0.6%(연 7.2%)의 연금을 가산해 받는 제도다.

지난해 연기연금 수급자는 3만298명으로 전년(2만3061명)보다 8000명 가량(35.7%) 증가했다. 지난해 가장 많은 월 204만5500원을 받는 서울 거주 66세 남성이 연기연금 수급자다.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월 90만원이다.

이처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꾸려나가는 고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의 60%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.

지난해 전체 65세 이상 인구 765만408명 가운데 국민연금 연금을 받은 노인 비율은 40.8%(311만9148명)였다. 2017년 39.0%(753만3550명 중 293만5808명)보다 1.8%포인트 늘었지만 나머지 59.2% 노인은 국민연금 없이 노후를 이어가는 셈이다.

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5.9%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 44.9%, 경북 44.8% 순이었다. 반면 강원은 37.4%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대전(38.3%), 경기(39.2%), 서울(39.3%), 충북(39.8%) 등도 40%를 밑돌았다.

## 새마을금고, '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' 10만건 돌파

### 모든 우대이율 적용 연5.0% · 가입기간 1년

새마을금고(중앙회장 박차훈)의 아동 명의로 저축할 수 있는 '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'이 출시 43일만에 누적 계좌수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.

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'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'은 누적계좌수 100,316건, 누적금액 251억9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. 가입연령이 만 6세

이하로 제한된 적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실적이다. 이는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 아이를 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지난 12월 10일 출시된 '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'은 아동 및 부모 중 1인 이상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경우 파격적인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. 기본이

율에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할 경우 연5.0% 이상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가입대상은 만 6세 이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. 납입금액은 월 50,000원 이상 200,000원 이하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.

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"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"은 한 시적 판매를 위해서 출시한 이벤트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를 진행 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다.



**설맛이 소외계층 돕기 나선 금융감독원**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설을 앞둔 23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,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. 왼쪽 두번째부터 기아대책 홍보대사 배우 김정화, 윤원장, 허인 KB국민은행장,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쌀과 육류 등 생필품을 구매,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했다.

## 사상 첫 국민연금 '월 200만원 수령자' 10명...328만원 부부도

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한 사람이 월 200만원 이상 타간 사례가 지난해 사상 처음 10명이나 나왔다.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0만명을 넘어섰다.

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9288명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한 연금은 총 20조7526억8400만원에 달했다. 매월 1조7300억씩 지급한 셈이다.

노령연금이 377만8824명(83.8%)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74만 2132명(9.9%), 장애연금 7만5734명

(1.7%), 일시금 17만2598명(4.6%) 순이었다.

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3만6973명으로 전년(50만4015명)보다 6.5% 증가했다. 이들은 매월 91만3699원을 받아 10~19년 가입자 평균(39만6154만원)보다 2.3배 많았다.

특히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발생했다. 최고액은 연금수급 개시연령(62세)을 미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기연

금을 신청한 서울 거주 66세 남성으로 204만5500원을 받았다.

부부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17년 1쌍에서 지난해 6쌍으로 늘었다.

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A(남·63)씨가 월 165만8000원, B(여·62)씨가 월 162만2000원을 받아 약 327만 8000원을 수령했다.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한 이들 부부는 A씨가 2015년6월까지 27년6개월간, B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.

## 광주는 제조업 생산 증가, 전남은 수출 · 고용 늘어

지난해 11월 광주지역 경기는 전년동월 대비 제조업 생산과 고용은 증가했지만,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의 경우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지만, 수출 ·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광주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·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5.1%(2017년 11월 대비) 증가했다.

수요 측면에서는 대형소매점 판매(5.4% ↓)와 수출(3.9% ↓) 등이 감소했다.

고용(취업자 수)은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9500명 늘어났다.

지난해 12월 중 광주 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.0%,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.4%, 0.1% 상승했다.

전남은 지난해 11월 중 전년동월 대비 제조업 생산 등은 3.5% 감소했지만 수출 · 고용은 증가했다.

제조업 생산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-8.0%), 코크스 · 석유정제(-1.9%)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.

수출은 석유제품(27.4% ↑)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32.7% 늘었다. 고용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1000명 늘었다.

지난해 12월 중 전남 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.5%,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.2%, 0.1% 상승했다.

신병우 기자

지역구간이매장조성정본리필

**湖南新聞**

전화 062)224-5800

팩스 062)222-5548

## 임산부 배려식,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?

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 
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.  
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